

# 배합사료의 국제경쟁력 향상 방안



김 정 인

신촌사료

## 배 합 사 료

### 1. 서 언

지난 10월 14일자 석간인 동아일보를 비롯한 각 신문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시장개방압력이 큰 농산물과 서비스업 가운데 우리경제에 부담이 크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유화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는 등 과감히 시장개방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미국은 지난 7월 지적소유권, 보험, 담배 등에 관한 한미통상협상타결 이후에도 농산물의 시장개방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측 관심품목인 알팔파초, 쇠고기, 포도주, 포도오렌지, 냉동감자, 프루트 칼테일 등 7, 8개 품목가운데 경제적 부담이 비교적 적은 5, 6개 품목의 시장을 조기 개방할 방침이다.」

다음날 모 조간지 사설에는 농민의 희생이 뒤따르고 희생후에도 앞으로의 무역관계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은 농산물이 수입개방을 반대하고 정부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수입개방압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므로 신중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중진공업국으로서 많은 공업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미국 등 많은 우방국으로부터도 계속적인 수출억제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입문호는 계속 닫아놓고 상대국의 문만 두들길 수는 없게 되었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의 대한농축산물수입압력은 매년 가중되어 1988년까지는 대폭 수입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생산비의 절감, 생산효율의 극대화, 품질의 향상 등으로 국제경쟁시대에 대비하여야 하며 배합사료업계 자체도 외국의 배합사료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나라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 배합사료의 수입자유화

배합사료는 당초 1986년 7월 1일부터 옥수수, 수수 등 사료곡물과 배합사료 전제품 즉 양계, 양돈 기타 애완용사료 등 전품목이 수입자유화 예시품목으로 되어있었으나 농수산부와 사료협회 등의 반대로 동일자로 양계용 및 애완용 동물배합사료만 우선 수입자유화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배합사료업체는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가) 국민 경제적차원

ㄱ) 현재 배합사료제조시설은 수요에 비하여 시설이 과잉되어 있어 국민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ㄴ) 현재 배합사료제조와 연관된 산업의 고용감소가 우려된다.

ㄷ) 사료원료에 소요되는 외화절약을 위하여 수입곡류의 사용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값비싼 국내산 원료를 사용토록하고 있다. 또한 원료사용한도량에 묶여 배합사료생산에 제약을 받고 있다.

ㄹ) 현재 배합사료원료의 수입관세는 곡류의 경우 7% (소맥 5%), 강피류 7%, 식물성박류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미국, 중공, 태국 등의 경우 사료원료생산 수출국이며 일반적으로 수출국들은 수출에 따른 정부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이며 일본은 거의 모든 사료원료에 대하여 관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ㅁ) 또한 외화절약을 위하여 곡물사용비율을 64%이하가 되도록 규제하고 있는 바 품질 가격면에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업체는 이의 개선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1986년 8월에 농수산부 축산국에서 발표된 「수입배합사료 사후관리 지침」에 의하면 수입업자의 자격은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수출입업 허가를 받고, 사료의 품질관리 인원확보 및 품질관리시설을 갖추고 수입배합사료의 성분등록을 필하는 등

의 세부적인 관리요강이 발표되어 현실적으로는 배합사료의 수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 3. 가격면에서 본 배합사료의 국제 경쟁력

현재 세계의 곡물시장은 석유와 더불어 과잉재고로 인한 가격의 하락과 판매경쟁으로 흡사 전쟁상태를 방불케하고 있다. 소맥의 수출보너스제도 실시로 호주, 캐나다, E.C. 등과 미국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으며 미국은 사상최대의 과잉재고로 고민중이므로 주요원료인 사료용 곡물의 가격은 당분간 안정세내지는 약세를 전망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내부존자원활용차원에서 국내산 보리 및 옥수수 등의 사용으로 외국에 비하여 매우 불리한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인근국가인 일본은 풍부한 자금력과 국제마케팅의 파워를 이용하여 국내용이 아닌 대한수출용 배합사료를 제조 수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와는 달리 엔화강세가 약세 내지는 안정세로 돌아설때 값싼 원료를 수입하여 한국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배합사료 가격은 <표 1>과 같이 한국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당분간 수입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표 1> 한국과 일본간의 배합사료 가격 비교

	한국(원/kg)	일본(원/kg)	비 고
대추사료	171.95원	241.80원	일본은
산란계	176.24	254.20	벌크사료가격,
육계전기	242.94	329.00	한국은
육계후기	231.60	292.30	평균판매가격

1986년 6월현재, 1¥=5.5원 (자료: 사료협회)

한편 우리나라에 수출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미국 태국 등의 국가에서의 수입가능성을 검토한 사료협회 기획부의 자료를 인용하여 보면 (표 2)와 같다.

배합사료의 생산은 대량생산을 기초로 하고 노동집약적인 생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발생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미국, 중공, 태

〈표 2〉 배합사료 수입 가능성 검토

	유 리 성	불 리 성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적으로 근거리에 위치</li> <li>- 부패, 변질성 해결</li> <li>- 낮은 선임</li> <li>• 배합사료 제조기술 수준의 우위</li> <li>• 일본 사료업계의 과잉공급 시설</li> <li>• 대규모화됨에 따라 제조원가하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화 강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 상실</li> <li>• 배합사료 제품의 고가</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값싼 원료 자원확보 용이</li> <li>• 배합사료 제조기술 수준의 우위</li> <li>• 원료 수출저조에 대응한 제분수출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거리에 위치</li> <li>- 운송도중의 부패, 변질우려</li> <li>- 높은 선임</li> </ul>
중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값싼 원료자원 확보, 용이</li> <li>• 지리적으로 근거리에 위치</li> <li>- 부패, 변질성 우려</li> <li>- 낮은 선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 및 상표상의 문제 (정치, 경제적 요인)</li> <li>• 배합사료 제조기술 수준의 저위</li> </ul>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값싼 원료자원 확보, 용이</li> <li>•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합사료 제조기술 수준의 저위</li> <li>• 일부 원료 확보상의 경쟁력 미비</li> <li>• 운송 도중의 부패, 변질우려</li> </ul>

국 등 원료생산국의 대한국수출잠재력은 상당히 높다고 보아야하고 운반거리가 먼 것은 운송비 부담이 다소 더 있을 수는 있어도 변질이나 부패 문제는 사료의 특수 가공이나 약품처리 등으로 쉽게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의 배합사료제조업체는 부단히 원가절감 및 품질 향상 등의 연구개발비 투자에 노력과 비용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 4. 품질면에서 본 배합사료의 국제 경쟁력

배합사료는 단순한 기호물품이 아니라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성격을 띠기 때문에 배합사료의 실질가격은 단위 배합사료당 생산할 수 있는 축산물의 가격(수입)에 의하여 결정되기 마련이다. 현재 한국의 배합사료수준은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하여 미국과 일본, 대만 등지의 사

료품질과 비교가 어려우나 필자의 개인적인 소견에 의하면 상당히 국제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본다. 캐나다 사료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육계는 사료요구율이 1.9:1로써 한국과 수준차이가 별로 없으나 산란계는 연간 수당 280개정도 산란하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250개정도로써 아직 개선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일본, 대만과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산란초기사료의 조단백질 수준이 17%이상이고 대사에너지는 kg당 2800~2840k 로써 한국의 15.0~15.5%, 2700k 정도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 더구나 최근 시판되는 실용계는 육종개량이 잘되어 체구가 작으므로 산란초기에 급여하는 사료는 닭의 능력을 판단하여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양질의 산란초기사료가 시판되고 있으므로 많은 양축가의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양축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사료의 kg당 가격 뿐이 아니고 품질면에서도 신경을 써서 배합사료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므로써 우리나라의 사료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사료의 품질은 사료공장 혼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는 양축가의 수준에 의하여도 변동내지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료가공 측면에서 볼 때 아직 한국의 양계사료는 아직도 개선될 소지가 많다고 본다.

사료의 가공방법으로는 대표적인 분쇄와 펠렛팅 등이 있고 그 이외에 산-알카리처리, 효소처리, 증기후레이킹, 박편처리, 튀기기(Popping), 볶기(Roasting), 익스트루전(Extrusion), 수침처리(Soaking)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중 양계사료에서는 분쇄하여 배합하는 가루사료(Mash Feed)와 펠렛사료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9년 6월에 최초로 펠렛사료가 생산된 이래 매년 펠렛사료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표 3 참조) 아직도 상당수의 양축업자들이 사료의 가격이라든지, 품질면의 의구심 등으

〈표 3〉 한국의 펠릿사료 생산실적

(단위: 톤)

	1984년				1985년				비 고
	사 협	축 협	합 계	펠릿/전체%	사 협	축 협	합 계	펠릿/전체%	
양 계 용	93,090	-	93,090	4.405	160,401	-	160,401	6.94	
양 돈 용	31,381	-	31,381	1.57	104,025 (203)	-	104,025 (203)	5.40 (0.01)	후레이크
낙 농 용	18,343 (3,742)	21,668 -	40,011 (3,742)	4.69 (0.43)	40,684 (15,731)	23,308 -	63,992 (15,731)	6.43 (1.58)	후레이크
비육우용	18,843 (6,448)	-	18,843 (6,448)	1.75 (0.60)	34,920 (15,850)	-	34,920 (15,850)	2.88 (1.31)	후레이크
기 타	225	400	625	8.11	1,372	858	2,230	10.87	
합 계	161,882 (10,190)	20,068 -	183,950 (10,190)	3.07 (0.17)	341,402 (31,784)	24,166 -	365,568 (31,784)	5.66 (0.49)	펠 렛 후레이크

※ 사협은 63개 공장중 58개 수치이나 5개 공장은 펠릿제조 시설이 없으므로 전국통계로 인정됨. (월간사료 4월호)

로 사용을 망설이고 있다. 증계장에서 증계사료를 펠릿사료로 이용하며는 비교적 청정한 사료를 급여하여 살모넬라균 등의 감염란을 상당수 줄일 수 있고 육계사료에는 사료효율개선, 단위 기간 당 증체속도를 높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펠릿과 후레이킹가공사료는 1985년도에 약 6%로써 이 비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더 많은 양계업체의 관심과 격려가 있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서 엄밀한 의미의 국제경쟁력, 즉 수출도 가능한 한국의 배합사료업체가 되려며는 가루사료의 형태로는 수출이 불가능할 것이고 이는 또한 한국으로 수출될 외국의 배합사료는 펠릿사료나 그와 유사한 형태일 것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어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표 4〉 유럽의 펠릿사료 비율

국 명	비 율
네덜란드	80%
독일	75
영국	70
프랑스	65
한 국	6

※ 한국은 1985년 현재

〈표 5〉 미국의 펠릿사료 생산비율

사 료 종 류	펠 렛	가 루
육 계	78%	22%
산 란 계	54	46
양 돈	60	40
비 육 우	56	44
젖 소	20	80
면 양	95	5
칠 면 조	77	23

## 5. 결 어

이상 두서없이 한국 배합사료의 국제경쟁력향상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으나 품질면에서 외산 배합사료와 대등하고 가격면에서 크게 불리할 것이 없다며는 내수용으로서의 한국 배합사료는 국제경쟁력을 계속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며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제 3국에 대한 사료나 사료제조기술 수출도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기 위하여는 첫째로 불필요한 배합사료의 품질 및 가격향상에 저해요인을 주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하루빨리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원료수입의 자유화가 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자유화는 일방적으로 국내배합사료

업계의 불리성을 강요하는 것으로, 첫째 국내사료업계에 대한 곡류 및 옥수수의 수입한도량 완전 철폐 및 곡류사용상한선(현 64%)은 완화내지는 철폐되어야 한다. 또한 국산옥수수, 보리, 대두박 등의 수입가격과 차액보상이 따르지 않는 사용시책은 중단되어야 하겠다.

둘째, 수입원료에 대한 관세정책의 완화조치로 일본이나 대만에 비하여 불리한 점을 개선시켜 주고, 배합사료원료의 수입자동화 지정으로 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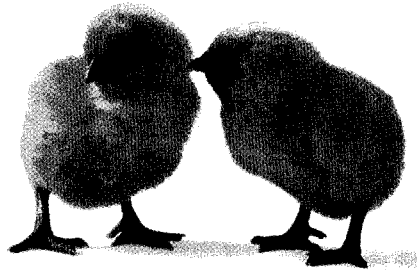
싶은 원료를 쓸 수 있게 해 줄때 한국의 배합사료는 품질가격면에서 명실상부한 국제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의 배합사료제조업체와 최소한 평등한 조건을 부여하고 경쟁을 시킬때 탈락하는 사료제조공장은, 노력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료공장이 어느때건 구제되거나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다.

값싼 병아리

튼튼한 병아리

이것이 **한일농산**의 기본정신입니다.



하이프로 : 하바드

### 생산과 판매를 분리하였습니다

분업화 전문화는 값싼 병아리 튼튼한 병아리 생산의 지름 길이며 양질의 서비스로 여러분의 영원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사업본부 : 경기도 이천군 설성면 암산리 408 (전화 0336-32-6168)  
 판매점 : 천안 백마축산 (전화 0417-3-0964)  
 의정부 새한축산 (전화 0351-40-5492)